

루이스 칸 건축에 있어서 유형학적 성격에 대하여 *

강 혁

(경성대학교 건축공학과)

1. 들어가는 말

일반적으로 루이스 칸은 50년대 이후 출현한 가장 탁월한 건축가의 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물론 그가 남긴 건축물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른 완성도와 비할 바 없을만큼 높은 질적 성취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축의 이론가 혹은 교육자로서 그가 펼쳐보인 건축적 사유와 방법들이 후대에까지 지속적인 영향과 교훈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¹⁾ 그렇지만 루이스 칸의 건축과 사상이 지닌 역사적 의의는 현대건축사, 혹은 모던 건축의 전개라는 커다란 틀에서 바라볼 때 더욱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독창적인 개성이었을 뿐 아니라, 모던 건축의 전화(transformation)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국제양식, 혹은 기능주의 건축이라고 불리던 동시대 건축에 반성적 계기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그 진로의 변경에 심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범지구적인 모던 건축의 승리 이후, 당시 건축이 봉착했던 위기적 상황에서 그의 건축은 하나의 돌파구로 작용했다.²⁾

루이스 칸의 건축은 모더니즘 건축(Modernism in architecture)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보자면 분명 문제적(problematique)이다. 그는 분명 모더니스트이지만³⁾ 순수한 모더니스트는 아니며, 아방가르드는 더욱 아니다. 반대로 그는 현대 건축에 '역사성'(historicity) 혹은 역사주의(historism)를 다시 도입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던 건축이 망각하거나 간과해왔던 다른 측면들을 회복시켰다.⁴⁾ 그는 모더니티의 선

2. 건축사가 빈센트 스컬리의 말을 빌리자면 칸은 "국제 양식 최후의 국면에 (현대) 건축을 소생시켰다."

Vincent Scully, "Introduction" in [Louis Kahn, In the Realm of Architecture], by D.B.Brownlee & D.G.De Long, N.Y., Rizzoli, 1991, PP.13

3. 그는 역사나 전통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동시에 모던 건축의 여러 원칙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충실하였다. 응용양식의 거부, 디테일에 대한 배려, 축조의 현대 공학에 대한 의존 등이 그러하며, 구조적 정직성을 외관으로 표현하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4. Ignacio de Sola-Morales가 보기에 Tentori가 한 "친구로서 과거"(past as a friend)라는 말 만큼 칸의 건축을 잘 특징지워주는 언명도 드물다.

* 본 논문은 1997년 학술진흥재단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1. 그의 건축물들(Kimball Art Museum, Philip Exeter Library)은 미국 건축가협회가 지은지 25년 후에도 건축적 완성도와 작품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에게 주는 '25년 상'을 수상한 바 있고 이미 현대의 고전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민음사에서 펴낸 20세기의 사상가 평전인 [103인의 현대 사상]에서 건축가로는 꼬르뷔제와 더불어 선정된 바 있다.

행적 미덕으로 간주되었던 '새로움' 대신에 무시간적인 '영속성'을 디자인 상의 우월한 가치로 추구하였다. 또한 모던 건축에서 부정되거나 무시되었던 상징과 기념성, 형상(figure)과 구성(composition)을 재도입했는가 하면, 그것을 현대적인 축조술과 교묘하게 종합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모더니스트들과는 다른 건축적 지향(intention)과 목표는, 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칸이 현대건축을 포스트모던적 경향으로 유도했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⁵⁾ 분명히 칸의 건축은 "국제양식이 종언을 고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했고 보다 견고한 모더니즘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⁶⁾ 그러나 칸의 건축이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유일하고 완전한 성취"라는 스컬리의 평가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는 모던 건축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성을 촉구한 셈이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보다 풍성하고 폭넓게 하였을뿐 아니라,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했다.⁷⁾

이러한 일이 어떻게 칸에게 가능했는지 묻는 일은 유익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 본 연구는 칸의 건축이 50년대 기능주의 건축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건축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었던 단초를 그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역사(과거, 전통)와 대면하고 그것을 모던 건축에 성공적으로 접합할 수 있었던데서 가능했다고 보고, 그가 역사적 선례와 관계맺는 방식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루이스 칸의 건축이 역사적 선례를 참조하여

성립하고 있음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손쉽게 역사를 이용하는 복고주의자나 절충주의자는 결코 아니었으며 역사를 통하여 건축을 근본에서 다시 사고하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노력한 드문 건축가였다. 본 연구의 관점은 루이스 칸의 건축이 과거(역사, 혹은 전통)를 현재와 매개하는 여러가지 가능성 중 설득력있고 유효한 방식의 한 가지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며, 그것은 개인의 독창성이나 기계적인 프로그램에만 기대고 있던 모더니즘의 관행에서 떠나 유형학적 사고를 기초로 한 것이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입장을 취한다. 물론 그는 살아 생전 유형(type)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가 거의 없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글과 강의, 도면과 드로잉, 실물 건축을 분석하고 그가 자신의 건축을 설명하는 데 동원한 특유의 용어와 개념들을 엄밀히 분석해보면, 그가 유형학적 사고에 근거해 건축을 하고 있으며 모더니스트이기보다 고전주의자적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설득력있게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까지 칸의 건축 교육의 불란서적 배경에 주목하고 그의 실물 건축과 과거 선례와의 깊은 연관성을 추적하는 연구는 적지 않았다.⁸⁾ 그러나 그의 사상과 건축이 유형학적 접근에 근거한 것이며, 그것이 실제의 설계와 건물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다.⁹⁾ 본 연구는 기존의 성과를 참고하면서, 그의 건축적 사고의 궤적을

Ignacio de Sola-Morales, "Louis Kahn: An Assessment" in [9H], N.5., 1983, PP.10

5. 로버트 벤추리나 찰스 무어, 마이클 그레이브스는 그의 동료, 제자이거나 그에게서 심대한 영향을 입은 바 있다. 알도 로시의 건축적 사고나 실천도 칸의 역사주의적 태도와 유사한 바가 있다. 그러나 칸이 이들의 건축을 자신과 동일한 노선으로 용인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6. Vincent Scully, Op. Cit., PP. 12

7. 그러므로 칸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동시에 모더니즘 너머를 응시하였던 선각자"라는 견해가 더 타당할 것이다.

M.P.Mezzatesta, "foreword" in [The Art Museum of Louis I. Kahn],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89, PP. 8-9

8. K. Frampton, "Louis Kahn and the French Connection" in [Oppositions] N.22, Cambridge, The MIT Press, 1980, PP.21-31

Patricia Cummings Loud, [The Art Museums of Louis Kahn], 1989, PP. 14-17

A. Tyng, [Beginngs: Louis Kahn's Philosophy of Architecture], N.Y., John Willey and Sons, 1984, (서유석 역, 태림문화사), PP. 18-22, 32-33

9. Ed Levin, "The Berkeley Lecture-A Postscript" In [Perspecta 28, The Yale Architectural Journal], Cambridge, The MIT Press, 1997, PP. 43-44

Jacques Gubler, "La campata e un tipo?" (Is the bay a type) in [Casabella], 1985, Jan-Feb., PP. 77-83

충실히 보여주는 언명들과 도면들을 일차적인 자료로 삼아 분석과 기술의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모던 건축의 비판으로서 칸의 건축과 그의 역사주의적 태도

칸의 건축은 50년대 국제양식의 형태적 해법들이 급속한 소진을 노정하면서, 비속한 수사학으로 전락하거나 익명적이고 추상적인 유리상자 건축으로 전락하고 있을 때 등장하였다. 그의 '문화의 힘'이 실린 인상적인 작품들은 동시대 건축에서는 결핍되었던 질적 특성을 구비함으로써 곧장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건축이 동시대의 건축, 혹은 1920년대 이후 형식화되고 획일화된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 있다.¹⁰⁾

칸은 당시까지 지배적이던 디자인에 대한 두 가지 모순되고 양립될 수 없는 사고¹¹⁾, -즉 건축가 개인의 창조력에 의존하는 자유로운 표현으로서 설계라는 시각과 프로그램의 기계론적인 번역 과정으로서 설계라는 결정론적 입장은 사뭇 다른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한 건축물을 기능이나 기술의 결과물 정도로 이해하거나, 혹은 형태를 기능의 표상으로 보려는 태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대신 그는 건축이 가치와 의미를 담은 행위로서 역사와 문화의 산물임을 주지시켰다. 그는 이를 언명을 통해 끊임 없이 환기시켰을 뿐 아니라, 실제의 건축에서 모던 건축의 관습화된 어법과는 상반된 방식으로 자신의 건축을 만들어감으로써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¹²⁾ 그럼으로써 그는 모던 건축 안에 거하면서도 그것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업적을 성취할 수 있었다.

칸으로 말미암아 건축은 다시 한번 자율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전체성을 회복하게 됐다고 평가된다.

루이스 칸이 거둔 탁월한 성과는 역사와 과거를 부정하는 모더니즘의 전통에서 한 발 비껴나 건축의 역사성의 복구, 그러니까 현재에서의 역사의 재해석 작업을 통해 가능했음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그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폴 크레 밑에서 받았던 고전 교육이 그러한 가능성의 하나의 바탕이 되었음도 잘 알려져 있다. 칸은 스튜디오에서 항상 학생들에게 역사적인 건축 작품을 참조하도록 권유하였으며, 기꺼이 역사적인 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피력했다.¹³⁾ 그가 역사적 선례를 중시했으며 그것이 그의 작업에 토대이자 영감으로 작용했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칸 특유의 역사에의 접근과 실제 디자인에의 적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가 미국의 주류 건축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시기, 이른바 '어두운 시절'(dark years)은 그의 건축관이 형성되었던 준비 기간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 시기 동안 공공주거 건설에 종사하였는데, 기능주의에 충실히 따르는 진부한 건축물들을 생산하면서, 그에 대한 회의를 키워갔으리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모던 건축	루이스 칸
공간	균질하며 유동적인 보편 공간	구획되어 정체성을 부여 받은 실공간
벽체	투명하고 가벼우며 개방적인 벽체	육중하고 견고하며 닫힌 벽체
재료	최신기술의 산물로서의 재료	관습화된 재래적인 재료
형태	단순하고 익명적인 형태	기념비성을 띤 개성적 형태
부분/전체	전체에 통합된 일부로서 부분	중심을 지니면서 독립적인 부분들
구성	추상 기하학에 의한 구성	위계와 병치에 의한 구성

10. Ignacio de Sola-Morales, Op-Cit., PP.9

11. 이점은 A. Colquhoun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A. Colquhoun, "Typology and Design Method" in [Essays in Architectural Criticism], Cambridge, The MIT Press, 1981, PP. 43-46.

12. 구체적으로 칸은 다음과 같이 모던 건축과 상반되는 문법과 어휘를 구사했다.

13. H. Koyama, "Louis Kahn ann his Times" in [Louis Kahn, A+U special], Tokyo, 1983, PP.23

1953년 예일대학교 미술관을 필두로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까지 그가 선보인 일련의 작품들은 당시의 일반적인 미국 현대건축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건축계에 충격을 주었다. 칸에게 명성을 제공해준 예일대학교 미술관만 하더라도 일면 미스적 체취가 짙게 배어있는 것이었으나, 이후 시간이 갈수록 성숙도를 더해가면서 독자적이고 예외적인 면모를 보여지게 되었다. 한편 칸은 1955년 예일 퍼스펙타誌에 '질서란'(Order is) 글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건축 사상을 본격적으로 개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독특한 개념과 용어를 구사하면서 점차 변모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던 그의 건축 철학은 그러나 그 기초에 있어서는 일관된 것이었다.¹⁴⁾

그러한 칸의 건축 세계가 근대 이전의 서구 건축의 역사와 풍부한 유산의 영향하에 비롯된 것임은 점차 명백해졌다. 로마 고대의 폐허, 중세의 알비 성당이나 스코틀랜드의 성채, 이집트와 카르카손느, 비올레 르 뒤과 쇼와지로 이어지는 불란서의 구조적 합리주의, 과테로 대표되는 불란서 아카데미의 전통, 계몽주의 시대의 르두와 불레와 피라네지 등과의 상관성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칸은 스스로를 고전주의자라고 시인하면서도 자신의 리차즈 의학연구소와 산 지미나노와의 직접적인 유사성을 지적하는데 대하여 불쾌감을 표명하며 이를 부인하였다.¹⁵⁾ 이는 그의 역사와의 대면이 좀더 심오하며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가 건축의 역사에서 주목한 것은 외적 변화와 발전이 아니라 그 기저에 깔려있는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이었다. 그의 역사에 대한 자세는 고고학자라기보다 인류학자의 그것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¹⁶⁾ 그는 건축의 역사를 통해서 본질적인 것, 근원적인 것, 원초적

인 것을 발견하고자 하였고, 그것을 현재적인 관심에서 복원하고자 했다. 칸 스스로도 “필요한 것은 과거의 건축을 우리의 지식과 요구와 관련하여 해석하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 사이의 변증법적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오래되었으나 항상 새로운’, 건축의 역사 속에 항존하는 ‘일반 원리’(universal ordering principle)를 찾고자 하는 관심이기도 했다.¹⁷⁾ 그는 그것을 “나는 건축의 역사에서 ‘제 영권’(volume 0)을 읽기를 원한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모던의 새로움과 신기성 대신 始原的인(맨처음; beginning) 것에 해당하는, 그래서 근본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칸의 역사주의적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에 봉착한다. 칸의 ‘역사와의 관계맺기’는 분명 칸 특유의 접근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가 받았던 보자르식의 고전주의 교육을 제외하고서 상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건축에는 본질적인 어떤 원리가 있어서 역사를 통해 변하지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그의 스승 폴 크레의 가르침은¹⁸⁾ 바로 칸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흔히 칸의 평면 구성의 형태적 친근성 때문에 그에 대한 보자르의 영향이 자주 거론되곤 하나, 그 이전에 칸의 건축적 사고의 원점을 형성한 이론적 배경으로 보자르 이론의 중요성은 간과되는 편이다.¹⁹⁾ 물론 그는 보자르의 교훈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다른 원천들과 결합하여 개인적인 수사학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보자르 아카데미 전통의 한 연원을 이루는 유형학적 사고를 건축에서 ‘원형’(archetype) 내지 ‘기원’(origin)을 구하려는 칸의 사고와 면밀히 비

14. A. Latour, [Louis I. Kahn: Wrightings, Lectures, Interviews], N.Y. Rizzoli, 1991

15. A. Tyng, Op. Cit., PP. 36

16. 즉 그는 건축사에서 통시적인 것 보다 공시적인 것, 지속적이며 구조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다.

17. 보편적 질서화의 원리는 바로 “What the building want to be”로서 바로 그의 Form, Beginning 개념과 통한다.

K.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Critical History], London, Thames and Hudson, 1980(1992), 244-245

18. A. Tyng, Op. Cit., PP. 20

19. Ed Leban, Op. Cit., PP. 43

교하고 분석해보면, 루이스 칸 건축의 주요한 한가지 특성을 밝혀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3. 칸의 건축 사상의 유형학적 성격

이제는 일반 용어가 되어버린 그의 유명한 개념어들, 즉 형태와 디자인(Form/Design), 봉사하는 공간과 봉사받는 공간(servant space/served space), 헤아릴 수 있는/헤아릴 수 없는(measurable/unmeasurable), 시작 혹은 처음(Beginnings), 침묵과 빛(Silence and Light) 같은 말들을 통해 칸은 자신의 건축 사상을 피력하고 체계화했다. 일견 난해하고 형이상학적인 그의 건축 철학은,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주와 세계, 자연과 인간과 사물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건축과 결부시키고, 그것에서 건축의 존재 이유, 생성의 원리와 방법을 도출하려는 선형적 이론화의 시도라 볼 수 있다. 그의 건축 사상은 유태적 가계 배경과 신비주의, 신플라토니즘 사상, 고전주의적 건축 교육, 당대 과학에 대한 이해, 로마 체류와 기행에서의 각성, 실제 건축의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간 것으로 추정된다.²⁰⁾

하지만 그가 시존일관 건축에서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근원을 추구하고 영속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찾고자 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의 관심은 '어떻게'(how)라는 방법적인 것에 앞서 더 근본적인 '무엇'(what)에 관한 것이었

다. 그가 말하는 질서(Order)는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질서를 뜻하는 데,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눈으로 포착할 수 없으며 자연을 비롯한 모든 존재의 이면에서 그 되어진 바를 이끄는 어떤 원리나 이법(理法)을 가리킨다.²¹⁾ 질서의 하위 개념이자 질서의 비가시적 현현이 바로 '형태'(Form)인데, Form은 구체적인 물리적 형태(form)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²²⁾, 그 전에 개개 사물을 그렇게 끌짓도록하는 추상적인 선개념으로서 건축을 형성케하는 근원적 요소이다²³⁾. 그러므로 Form은 치수나 맥락, 작가 개인과 무관하며 '헤아릴 수 없는'(unmeasurable) 것이다. 디자인이란 이 Form에 의거해 건축가 개인에 의해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사물로서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특정 조건하에 진행되는 것이며, '헤아릴 수 있는'(measurable) 사물을 도출해내는 일이 된다.²⁴⁾

여기서 우선적으로 주목할 것은 칸이 건축에서 '형태 생성'의 문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의 사상을 분석해보면 칸은 건축의 형태를 기능이나 프로그램과는 다른 차원의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형태를 기능이나 기술과 인과(원인 결과)적 관계로 보고자하는 모던 패러다임을 부인하고 자율적인 영역으로 간주한다.²⁵⁾ 건축물의 형태

21. 이점에서 칸의 '질서'의 개념은 여러 면에서 노자의 도(道)의 개념과 상통한다. 질서와 도, 노자의 유/무(有/無)와 칸의 빛과 침묵(light/silence) 사이의 유사성을 J. Lobell은 지적하고 있다.

J. Lobell, [Between Silence and Light], Boston, Shambhala pub., 1979, PP. 64-65

22. 칸 특유의 개념어인 Form은 일반적인 형태(form)과 전혀 다른 것이기에 본 고에서는 영어 Form으로 표기한다.

23. Form에 대해서 칸 스스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했고 시간에 따라 다소 그 개념이 변화하기도 했다. 칸은 초기에 Form과 관련하여 구조적 질서를 강조했고, Framton도 이를 받아들여 그것을 구조의 항구적 요소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Form은 unmeasurable과 관련하여 볼 때 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근본 개념, 혹은 궁극적 요소로 보는 편이 나올 것이다.

24. [Louis I. Kahn, Writings, Lectures, Interviews], ed. by A. Latour, N.Y., Rizzoli, 1991, PP. 58, 112, 232

A. Tyng, Op. Cit., PP. 45-68

25. A. Latour, Op. Cit., PP. 112-120

20. 칸 스스로는 자신의 사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했으며, 좀더 넓은 역사적 맥락 속에 자신의 건축 사상이 자리매김되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J. Burton, "The Aesthetic Education of Louis I. Kahn, 1912-1924", in [Perspecta 28], Cambridge, The MIT Press, 1997, PP. 204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의 사고의 원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J. Burton, "Castles of Eternity" in [Louis I. Kahn, 1901/1974], [RASSEGNA] N.21, Milano, 1979, PP. 68-73

V. Scully, "Louis Kahn and the End of Modernism" in [A & V], PP. 98-99

A. Tyng, Op. Cit., PP. 11-43

는 건축가의 독창성에 의존해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Form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며, 이 점에서 건축 설계는 ‘발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칸에게 건축가의 우선적 과제는 Form의 탐색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그의 건축 철학의 기초라 할 Form-Unmeasurable-Silence로 이어지는 개념의 전개이다. 이는 Design-Measurable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칸의 이원적 사고를 잘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보다 ‘형태 생성’에 있어 전자가 후자에 선행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사물의 본질, 즉 내적 ‘질서’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다 근본적인 것이다. 그러기에 무형의 “헤아릴 수 없는 것(unmeasurable)의 구현”이 건축인 것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칸은 ‘제도’, 혹은 ‘시설’(institution)이라는 관념을 도입하고, 건축은 인간 제도(시설)의 표현이라는 주장을 편다. 그런데 제도 혹은 시설은 인간 공통의 ‘공동성’(commonness), 즉 인간 모두가 공유하는 ‘욕망’(desire)과 ‘영감’(inspiration)에 기초하여 성립한다. ‘공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선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항구적으로 지속되어온 인간 제도(시설)에는 공동의 이상, 혹은 이념(ideal)이 आरो세겨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역사적 선례의 유효성이 확인되고, ‘맨 처음’, 혹은 ‘시작’(始原; beginning)의 사상이 도입되게 되는 것이다.²⁶⁾

겉으로는 복잡하고 애매하기까지 한 루이스 칸의 건축 사상에서 형이상학적 색깔을 제거하고 들여다보면 실상 그것이 오래된 유형학적 사고의 개인적, 시적 표현임이 금방 드러난다. M. Sabini에 따르면 칸의 사상의 핵심에는 “Form, Order and Design”의 개념이 자리잡고 있으며²⁷⁾, 그의 후기 사상은 이것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의 제대로 된 파악은 칸의 건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구체적인 건축 형태(concrete built form)를 만드는 행위인 디자인(Design)과 구별되는 Form 개념의 설정은 칸의 건축적 사고의 근간을 이룬다. 칸의 말을 빌면 “Form은 비개인적인 것이며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Design은 디자이너 개인의 일에 속한다.” 또한 Form은 “특정한 형상(shape)이 아니다. 형상은 디자인과 관계된 것이다” 즉, 디자인이 개별적이고 정황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인데 비해, Form은 디자인을 가능케하는 선행 개념(pre-concept)이자 前형태(pre-form)를 가리킨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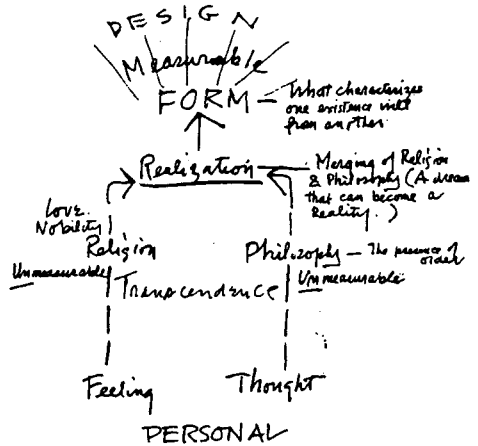


그림 1. 그의 건축철학의 체계도. 건축의 근본으로서 종교와 철학이 동원되고 있다.

칸은 때로 ‘존재 의지’(existence will)라는 철학적 뉘앙스가 담긴 어휘로 Form을 규정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사물인 손가락을 예로 들면서 그것의 Form은 음식을 담은 빈 공간(bowl)과 손잡이(handle)라는 불가분의 ‘요소’와 그 ‘관계’에 있다는²⁹⁾ 설명을 하기도 한다. 손가락의 Form은 그것의 재료나 크기,

26. C. Norberg-Schulz, "The Message of Louis Kahn" in [Architecture: Meaning and Place], N.Y., Rizzoli, 1986, PP. 201
 27. M. Sabini, "Tra Ordine e Forma"(Between Order and Form) in [Rassegna 21], PP. 14

28. C. Norberg-Schulz, Op. Cit., PP. 201
 29. "내게 Form은 사물의 불가분의 부분들을 의미한다. 그것은 디자인과는 무관하다."
 "Form, to me means the inseparable parts of something-the realization of the inseparable parts-it has nothing to do with 'design' whatsoever"

모양이나 구멍의 깊이 등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디자인이 개인이나 주변 맥락과 무관하게 손가락을 손가락이 되게 하는 근본적인 '내적 구조'이다³⁰). 유사하게 칸은 자전거 바퀴의 Form은 원(circle)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는 칸의 Form이 사물(건축)을 구성하는 보편적이고 선형적인 추상 개념이자 前形(pre-form)으로서, 건축사 속에서 항구적인 성격을 띠고 구조화되어 존재하는 그 '무엇'(what)을 지목하는 것임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³¹)

이상의 논의에서 칸의 Form 개념과 유형(type) 사이에 유사성을 지적하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칸에게 Form은 상위 개념인 질서(Order)와 건축가의 구체적인 행위인 디자인(Design) 사이에 놓이면서, 디자인을 위한 이상(Idea)이자 원천(origin)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유형학에서 말하는 '선형적으로 인식된 형식'인 유형(type)의 개념과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칸이 건축에 대한 유형적 사고를 전개하게 된 배경은 그가 받았던 보자르 교육을 고려해볼 때 쉽게 납득된다. 우선 신고전주의 시대의 유형학이 불란서 아카데미의 전통으로서 原-보자르(proto-Beaux-Arts)적인 토대를 형성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자르 전통 내에는 다양한 사고와 경향이 스며들어 왔지만, 신고전주의의 건축 이론의 핵심적인 두 개념인 유형(type)과 성격(character)에 관한 사상은 중추적 교훈으로 지속되었다. 칸이 펜실바니아 대학에

서 고전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한 관점을 흡수했으리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³³).

Ed Levin에 의하면 칸의 용어 Form은 바로 신고전주의 이론에서의 유형(type)과 통하고, 건물 프로그램의 정신(spirit)이나 사상은 성격(character)과 그대로 통한다. 칸은 학교, 병원과 같은 인간의 제도/시설을 설명하면서 그것들이 '정신'(spirit)을 지니고 있으며, 그 정신은 '공동성'(commonness)에 기반을 둔 장소의 '성격'(character)에 다름 아님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제도/시설의 '성격'이 공한 건물 유형, 혹은 그 장소의 정체성(identity)의 개념에 더 가깝다면, Form은 각 건물의 개별적인 형태에 선행하는, 역사 속에서 구조화되어 집합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그야말로 대문자 F로 시작되는 Form으로서 유형(type)인 것이다.

건축에서 유형학적 사고, 혹은 유형이라는 개념은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 특히 신고전주의의 저명한 이론가인 드 퀴시(Quatremere de Quincy)의 사고를 칸과 비교해보는 것은 여러모로 시사적이다. 유형은 건축의 역사(문화) 속에 "내재하는 불변적 요소"로서, 드 퀴시의 말을 빌리자면 "부수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감정으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원리"이다. 그것은 건축을 구성하는 본질이자 근원으로서, 시간 속에서 건축의 형태(form)를 통어하는 것이다. 그의 유형, 혹은 이상적 유형(ideal type)으로서 원형(archetype)이라는 관념은 유물론적인 모델이 아니라, 모방해야 할 추상적인 원리라는 점에서³⁴) 칸의 Form 개념과 거의 합치한다. 유형은 자연의 보편적 질서에서 유래한 건축의 이상적 질서를 가리키며, 기원(origin)이나 원초적 원인(primitive cause)이라는 개념과 관계가 깊다.³⁵) 드 퀴시에게 깊은

30. A. Latour, ed., [Louis I. Kahn: Writings, Lectures, Interviews], N.Y., Rizzoli, 1991, PP. 113

31. A.Tyng은 Form이 변화하는 건축 양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영원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또 Form은 무형적인 것임도 지적한다.

A. Tyng, Op. Cit., PP. 50

32. 유형 개념과 그 관점도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자연과학의 분류법과 관련된 듀랑 류의 건물 유형과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건축 언어로서 유형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는 본래의 개념, 그러니까 자연과 건축의 이상적 질서와 관련된 추상 개념이자 원리로서 유형을 가리킨다.

A. Vidler, "The Idea of Type" in [Oppositions], N.8, Cambridge, The MIT Press, 1977, PP.93-113

33. Ed Levin은 칸의 Form과 Institution의 개념과 그 탐구에는 원형으로서 type과 건물 프로그램의 이념이나 정신으로서 character의 추구가 공존하고 있다고 본다.

Ed Levin, Op.Cit., PP. 43

34. Q. de Quincy, "Type" in [Oppositions] N.8, Cambridge, The MIT Press, 1977, PP. 148-149

영향을 미친 로지에(M. A. Laugier)의 ‘원초적 원두막’(Primitive Hut)의 개념은 건축의 시원이자 본질을 추론해 영원하고 이상적인 유형으로 제시된 것인데, 바로 칸의 근원의 사상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유형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건축에서 순수한 창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공 속에서 아무런 제약 없는 설계란 사실 불가능하며 디자인은 역사적 선례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건축의 생산이 역사 속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적 원리나 구조, 곧 유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유형학은 역사에 대한 독특한 입장에서 성립하는 데, 건축사의 외적 변화 보다 내적 항구성에 주목한다. 그것을 칸은 “미래에 존재할 것은 이제까지 항상 있었던 것”(what will be has always been)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모네오(R. Moneo)의 말을 빌리면 건축에서 유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건축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거나, 그것을 재정의하려는 것이다. 비록 칸이 유형이란 용어를 동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견지에서 Order-Form-Design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설계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과 독창성의 신화에 급진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칸에게 건축가의 주된 과제는 구체적인 건물(building)을 만드는 일인 디자인에 앞서 제도/시설로서 건축(architecture)의 Form을 탐구하는 일이 된다.

이러한 칸 건축의 유형학적 사고의 발생 배경을 국제 양식, 혹은 모던 건축과의 변증법에서 추론해보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모던 건축을 새로이 접하면서 그는 양자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기능주의적 모던 건축을 실천하면서 절감하게된 한계를 극복하는데 초기의 고전주의 교육이 다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으리라 짐작된다³⁵⁾. 아울러 칸의 유형학이 이성적 추론에 근거했던 선대의 유형

학과는 달리 개인적이고 직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형이상학적 광휘나 종교적 아우라(aura)에 의해 윤색되어 있음도 흥미로운 사실이라 하겠다.

1959년 칸은 First Unitarian Church의 설계를 수행하면서 Form의 개념을 보다 뚜렷이 정립한다. 그 과제가 칸에게 특별히 의미있었던 것은 그가 Form-drawing이라고 부른, 스케일과는 관계없는 건축의 궁극적 요소들이 ‘시설’의 고유한 성격(character)을 형성하는 도식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그것은 칸의 말을 빌면 “불가분의 요소들로 구성된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한 것이었다³⁷⁾. 거기에는 교회의 구체적인 형태와는 무관하게 교회 건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의 어떤 ‘질서’나 ‘관계’(내적 구조)가 나타나 있다. 예를 들자면 ‘중심성’과 ‘중첩성’ 같은 것인데, 디자인의 출발점을 이루는 무형의 ‘형상적 골조’(figurative skeleton)로서 유형인 것이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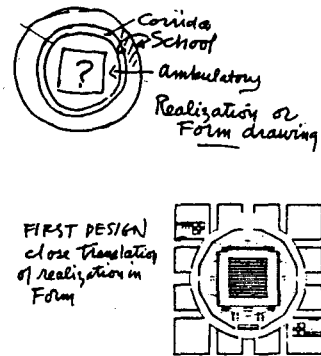


그림 2. Form-Diagram과 그에 의한 디자인의 발전

37. 칸에 의하면 Form은 한 존재를 다른 존재로부터 특징 지워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손가락의 Form은 손잡이와 뜨는 파인 부분이라는 불가분의 요소와 그 관계에서 나온다. 그것은 손가락의 재료나 크기, 모양이나 구멍 깊이 등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다. 디자인이나 맥락과 무관하게, 손가락(건축)을 손가락이 되게 하는 근본적인 ‘내적 구조’가 바로 Form이며, 곧 유형(type)인 것이다.

A. Latour, ed., [Louis I. Kahn: Writings, Lectures, Interviews], N.Y., Rizzoli, 1991, PP. 113

38. M.Sabini, Op. Cit., PP. 16-17

35. A. Vidler, Op. Cit., PP. 95

36. A. Tyng, Op.Cit., PP. 18-33

D. B. Brownlee & D.G. De Long, Op. Cit., PP. 20-46

4. 발생기이자 유형으로서 기하학

그러면 칸은 어떻게 자신의 유형학적 사고를 실제 건축에 실천해왔는가? 유형이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관념이기에 건축물의 디자인이나 형태가 거기에서 저절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흥미있는 연구 대상이 된다.

칸의 건축적 사유의 전개 과정은 대개 그의 실무 작업의 진화 과정과 그 궤적을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의 사상과 실체가 일대 일로 대응되는 등가물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흔히 칸의 건축을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역으로 그의 사상을 칸의 건축을 설명하는 도구로 동원하곤 하였다. 그러나 건축적 사고의 원점으로서 '형태'(Form) - 즉 무엇(what)-가 어떻게(how), 즉 디자인(Design)을 통하여 실제의 건축으로 형상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연구된 바는 많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칸이 남긴 스케치와 메모들이 유력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디자인(how)에 선행하는 것으로 Form(what)이 더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디자인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Form은 디자인의 원형으로서 출발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건물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 지"(what the building wants to be)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실체로 만들어가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은 분명 Form의 탐색과는 다른 영역의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Form과 디자인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서 칸의 기하학, 혹은 기하학적 구성에 주목하게 된다. 그의 건축을 관찰해보면 기하학이 디자인 과정에 질서를 부여하는 작용을 하면서 Form을 실제의 형태로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³⁹⁾

칸의 건축 세계는 정방형과 원형과 같은 원초적인 기하학(primary form)으로 가득차 있다. 그것들은 칸의 건축의 평면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다. 칸의 건축의 평면에는 모던 건축의 추상 기하학과는 다른 형태의 기하학적 구성이 일관되게 발견된다.⁴⁰⁾ 즉 칸 특유의 기하학의 구사가 두드러지는데, 이 역시 보자르 교육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음은 여러 곳에서 지적되었다. 주목할 것은 칸의 기하학이 그의 건축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이다. 그의 기하학은, 칸이 말하는 건축적 질서의 한 현현인 구조, 혹은 축조(construction)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공간=실=장소를 생성하는 발생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⁴¹⁾

칸에게 공간은 분자나 원자처럼 더 이상 분할되지 않는 단위로서 고유한 성격을 간직하고 있는 실(room)을 뜻한다. 칸은 자신의 공간 개념을 규정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만약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면 그 공간은 단순한 구획(area)이라 불리 마땅하다. 내가 구획이라 칭한 것을 미스는 공간이라 하였다. 그는 공간을 세분해 구별하지 않았다." 여기서 칸은 칸은 미스의 중성적이고 균질한 공간과 자신의 특성화된 공간을 구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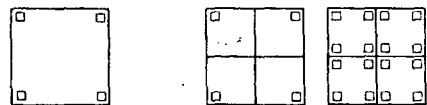


그림 3. 공간과 구축 그리고 실

그림 3에서 첫째는 하나의 구획으로 공간이며 두 번째는 그것을 넷으로 분할한 것이다. "미스는 분할된 횡수에 상관없이 그 전체를 공간이라 불렀지만, 나는 분할되기 전의 개별적인 것을 공간이라 불렀지, 분할 후의 것은 공

40. 그리드에서 보듯이 모던의 기하학이 데카르트적인 수학에 근거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환원적인 성격을 띠면서 건축 디자인의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칸의 기하학은 고대와 르네상스의 전통 내에서 계승되어온 신성하고 가치를 담지한 우주론적 성격을 띤 기하학이라 말할 수 있다.

41) 이점에서 Gubler는 그의 고딕적 유산, 즉 구조적 합리주의와 고전적 유산의 종합에 주목한다.

J. Gubler, "Is the bay a Type?", Op. Cit., PP. 77-82

39. R. Moneo, "Geometry as Unique Adobe" in [A & V], N. 44, Madrid, 1993, PP. 2

간으로 부르지 않는다.”⁴²⁾ 그것은 구획에 불과하다. 그림 3에서 세 번째 것은 분할된 것마다 자체의 구조를 가져서 개별성을 회복하고 다시 공간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칸에게 건축은 “사려깊은 공간의 창조”이며 그것은 실을 만드는데서 나온다.⁴³⁾

중요한 사실은 장소적 성격을 부여받는 공간, 곧 실의 생성이 기하학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칸에게 “실은 건축의 시작”이며, 평면은 “실들의 사회”(the society of Rooms)였다. 그래서 그의 건축은 개별적인 실 공간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의 성립은 평면의 기하학과 그 구성에 의존한다. 그래서 실 공간들은 분절되어 있고 자기 완결적이다. 기하학에 의해 실들의 조합은 위계적이면서 중첩되고 중심을 지니게 된다. 실상 기하학적 구성을 전제하지 않고서 -First Unitarian Church의 경우에서 보듯이- 칸의 추상적인 개념(Form)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닌 物로 현실화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⁴⁴⁾

칸의 건축에서 기하학은 물론 하나의 형상(shape)으로 존재하지만, 그 이전에 건축 공간을 형성하는 前形(pre-form)내지 이상적 형태(ideal form)로도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기하학 및 그 구성에 대한 플라토닉한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그의 기하학은 디자인의 도구, 혹은 현존하는 실체라기 보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작용하는 정신적이고 이념적인 것

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칸의 기하학은 구조와 더불어 공간=실에 질서(Order)를 부여하는 매개체이며, 이 점에서 Form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칸의 기하학, 혹은 그 구성은 축조적 질서와 결합되어 그의 건축을 가능케하는 발생기로서 ‘유형’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유형으로서 기하학은 칸의 건축에 결정적 동기가 되었다고 평가되는 뉴저지주 트렌턴 소재의 유태인 공동체 센터(1955년)의 목욕장 건물(bath house)에서 잘 드러나 있다(그림 4). 그리스 십자형(+)의 이 목욕장은 네 개의 분할된 정방형 공간이 중앙의 중정을 둘러싸는 형태를 지닌다. 각 정방형 공간은 네 개의 속이 빈 정방형 기둥에 의해 지지되고 상부는 피라미드형 지붕으로 덮혀 있다. 이 건물의 기하학적 구성은 정방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 조합에 의해 중심을 지닌 완결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Weber de Vores 주택이나 Adler 주택도 정방형을 기초로 그 조합에 의해 건물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동일한 구조 체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정방형, 그리고 그 결합체인 십자형은 용도나 규모와 무관하게 칸의 건축에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구성 형식으로 건축을 만들어나가는 기본 요소(element)이자 이상적인 형태로 기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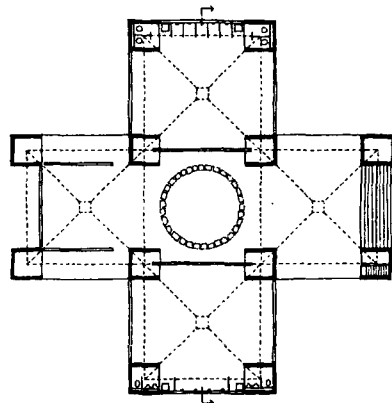


그림 4. Trenton Bath House

42. H. Klotz와의 대담에서의 설명이다.

R. S. Wurman, ed., [What will be has always been: The Words of Louis I. Kahn], N.Y. Rizzoli, 1986, PP. 206

H. Klotz, [The History of Post Modern Architecture], Cambridge, The MIT Press, 1988(1984), PP. 121-122

43. 물론 그 실들, 그렇니까 칸의 공간들은 축조(construction)에 의해 독자적인 장소적 성격을 부여받고 그가 강조해마지 않는 빛에 의해 고유한 동일성(identity)을 획득한 것이기는 하다.

44. 교회의 초기 Form-Drawing의 중심성과 중첩성, 그리고 요소들 간의 관계의 개념이 중앙의 정방형과 주변의 원의 중첩적인 둘러싸임으로 그려져있는 것도 기하학과 관련하여 의미심장하다. 교회 디자인의 발전은 보다 정형적인 기하학의 구성에서 보다 자유로운 구성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칸의 기하학, 혹은 그 조합은 프로그램이나 부지, 맥락, 스케일에 선행하여 건축 디자인에 개입하는 근본적 요소이다. 트렌턴 목욕장에서 정방형 평면과 그 십자형 조합은 설계 과제에 앞서 칸에게 선형으로 인식된 것(preconception)이며 실 공간의 발생기(space generator)이자 前形(pre-form)으로서 동원되고 있다. 이는 마치 로지에의 원시 오두막(Primitive Hut)이나 르 꼬르뷔지에의 도미노 체계(Dom-mino system)에 비견되는 것으로, 플라토닉하고 원초적인 쉼터이자, 건축물의 발생을 위한 추상적인 개념 장치라는 성격을 띤다. 이 기하학적 유형을 바탕으로 그는 이른바 ‘공간의 질서’(주 공간/부속 공간, 실의 기능과 구조)를 건물에 부여하고 있다.⁴⁵⁾

칸의 기하학이 지닌 유형적 성격은 그의 특정 과제에 대한 디자인의 전개를 보여주는 스케치에도 잘 나타난다. 디자인의 초기 단계에 일종의 아이디어 스케치로서 “건물의 본질적 성격을 드러내는” 드로잉에는 예외없이 기본적인 기하학들의 조합이 등장하고 있다(그림5). 그것은 디자인을 시종일관 지배하는 것으로서, 그의 ‘맨처음’의 개념, 혹은 ‘Form Elements’의 개념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⁶⁾. 그것은 건물 전체 구성을 이루는 주요 모티브 이상의 것이다.

그러므로 칸의 기하학, 혹은 그것의 특징한 조합은 실(공간)의 생성에 관여하면서 건축에 질서를 부여하는 근원적 형태로서 유형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모던의 추상 기하학과 달리 무시간적이고 초역사적인 건축의 원형적 구조를 표상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보편 언어인 것이다.

45. 트렌턴의 목욕장이 칸이 로마에서 돌아온지 2년 후에 완성된 것이라는 사실은 그의 역사에 대한 태도와 결부해 볼 때 의미심장하다. 혹자는 그의 정방형 실-공간이 로마 목욕장(thermae)에서의 구조적 형태에 위계적 질서를 부여하는 정방형 배와 연관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46. 칸은 말년에(1966) 버클리 대학에서 한 강연에서 Form을 설명하면서 Form과 요소(elements)를 묶어 Form Elements라는 말을 한다.

Ed Levin, Op. Cit., PP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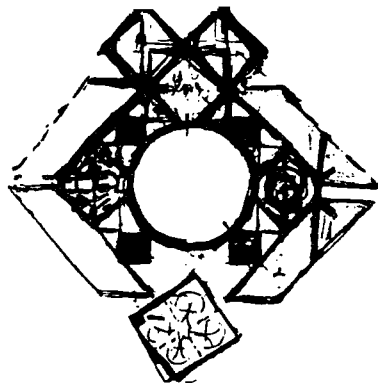


그림 5. 다카 배치도의 초기 스케치

5. 평면의 기하학적 구성

앞서 언급했듯이 칸이 실현시킨 건물들과 계획안들을 들여다보면 정방형이나 원형, 혹은 삼각형과 같은 기하학의 기본적 요소들과 그 특유의 조합이 반복되면서 평면을 구성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들은 때로는 명시적으로, 때로는 내재적으로 건물 각 부분의 실 공간과 구조를 규정하고 전체 건물을 만들어간다.

칸의 건축의 생성에서 평면의 중요성은 너무나 명백하며, 그 스스로도 그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칸이 평면을 만들어가는 방식은 모더니스트들이 타기하던 구성(composition)에 입각한 것으로, 그들에게 구성은 양식의 모방이자 역사의 답습이었지만, 고전주의자였던 그에게 그것은 역사를 가로질러 항구적인 건축의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이었었고, 디자인의 테크닉이기도 했다. 이 점에서 칸은 그의 선생인 클레와 에펠 드 보자르의 전설적인 스승 파데로 이어지는 아카데미의 합리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를 발명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선례로서 기성 어휘의 조합과 구성을 통하여 새로운 건축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관련해서 줄리앙 파데의 구성에 대한 이론은 칸 건축의 기하학적 구성에 대한 이해의 단서를 제공해준다. 파데는 [건축의 요소와 이론](1899)이라는 책에서 구성의 단위로서 ‘요소’(elements)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⁴⁷⁾ 파데에

게 요소는 역사적으로 미리 주어진 건축 어휘로서 단일하고 고정된 것이었다. 그것들은 결합의 기본 단위이면서 동시에 단일 기능을 담은 실들을 이루는 것이기도 했다. 이는 건축은 “실들의 사회”라는 칸의 언명을 상기시키며, 실제 구성에서도 칸이 기본 기하학을 단위 요소로 삼아 개별 실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양자간에 유사성이 발견된다.⁴⁸⁾ 그래서 각 부분, 각 실은 전체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인 지위를 지니면서 분화된다. 칸의 건축 평면에서 흔히 발견되는, 프로그램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선택되고 디자인을 통합하는 파르티(parti)라 불리는, 평면의 주요 모티브에 해당하는 부분에 의한 구성 역시 보자르적 전통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그의 건축에서 축, 대칭, 병치, 위계, 반복, 그리고 중첩성과 중심성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칸 평면의 기하학적 구성은 일면 보자르 전통에 강한 영향을 입고있으면서도 그 답습에서 벗어난, 칸 고유의 독자적인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모네오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고전적 구성법이나 기존의 유형학의 맹목적 추종이 아니며”, 솔라 모라레스에 의하면 칸 특유의 ‘유형학적 창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유형학적 담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칸의 새로운 구성적 접근은 보자르의 재생, 혹은 응용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기본 기하학에 의한 유형의 구성적 게임(compositional game of type)에만 머물지 않는 것은, 건축물이 “어떻게 되어졌는지”(how it is done) 보여주는 축조와 사려깊은 빛의 조정에 의해 독자적인 경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

47. 폴 크레는 “지난 50년간 에콜 드 보자르에서 과테의 책은 유일한 권위있는 문서였다.”고 말한다.(1903) 과테의 책은 강의형태로 된 건축의 유형과 요소에 관련된 담화적 연구였다.(서머슨), 1957
J. Guadet, [Elements of Architecture], H.H.Bentley, trns., 1933, Unpublished,

48. J. Lucan, "From Guadet to Kahn: The Theme of the Room" in [Casabella], Milan 1986, PP.72-76

이다.⁴⁹⁾ 따라서 그의 기하학적 구성에는 아카데미에서 보이는 ‘기하학의 독재’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점에서 칸의 기하학적 구성을 불란서 에콜 폴리테크닉의 교육자였던 듀랑의 강의록(A Summary of his Lecture; PRECIS)와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듀랑은 평면 구성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원과 정방형 같은 기하학의 기본 요소들과 그것으로부터 도출된 빠르띠의 다양한 조합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외견상 칸의 그것과 상당히 흡사하다. 요소주의 자로서 듀랑은 기본 기하학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분할하고 조합하면서 무한한 구성의 가능성을 추구한다⁵⁰⁾. 그리고 그것을 적절히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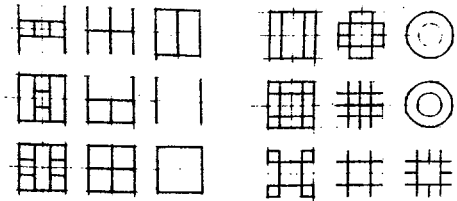


그림 6. 듀랑의 기본 기하학의 분할과 조합

여기서 듀랑과 칸 사이의 기하학에 대한 접근과 그 구성에서 유사성과 차이가 발견된다. 듀랑에게 기하학은 의미나 가치와 무관한 중립적 어휘로서 구성의 수단이자 도구에 불과하다. 그에게 정방형 같은 기초적인 기하학은 임의적으로 조합되면서 프로그램에의 적용가능성이 모색되는 대상에 불과하다. 듀랑의 기하학에 대한 태도와 그 구성 방식은 기계적 기능주의자의 그것이다. 반면 칸의 기하학이 용도와

49. 이점에서 칸의 건축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텍토닉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칸에게 축조(construction)은 단순히 물질과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담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50. S. Vallari, [J.N.L. Durand, Art and Science of Architecture], N.Y., Rizzoli, 1990

스케일과는 무관하게 자율적인 체계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듀랑과 일맥상통하고 있지만, 칸에게 그것은 Form과 디자인을 매개하면서 무형의 질서를 담고 의미있는 장소를 조성하는 선형적 언어이다. 그래서 칸에게 기하학은 질서와 영원성을 내포한 건축의 상징적 랑그이며, 그 조합에 의한 구성 방식은 임의적일 수 없고, 상호 불가분의 체계이다. 그러면서 칸의 기하학은 축조와 빛에 의하여 건축의 총체성(totality)을 회복하고, '침묵' 속에서 원시적인 감각과 초월적인 영기(aura)를 풍기고 있는 것이다.

6. 맺는말

디자인과 관련하여 과거 건축, 혹은 역사적 선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모던 건축의 역사적 실험은 과거의 전적인 부정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음을 보여주었다.⁵¹⁾ 그러나 탈모던을 외치면서 역사의 재도입을 외치던 최근의 시도들이 현실 삶의 맥락과 무관한 양식의 복고나 절충, 혹은 생동감이 결여된 무대장치로 전락한 것을 빈번하게 목격하기도 했다.

건축은 그 생산과 소통과 사용이 사회의 관행과 인습 내에서 일정한 변화와 지속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건축의 디자인은 역사와 무관할 수 없고 독창적 개인의 산물이기 전에 사회적 소산이기도 하다. 건축을 문화로 이해하는 것은 대개 이런 범주에서일 터이다. 그러나 현대 건축이 처한 사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현실 정황과 역사적 교훈과 물리적 맥락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신 아방가르드의 주장으로부터⁵²⁾ 역사적 양식을 복제하여 키치화하면서 소비하는 경향까지 모두가 건축의 이름으

로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더욱 진지하게 건축을 역사와 문화와 연관지어 생각해보고, 한 시대에 유의미한 건축은 어떻게 생산되었는가 질문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한 건축물이나 건축가의 평가는 결국 그 전후의 맥락이라는 역사적 퍼스펙티브에서 내려지며, 그 사적 중요성은 현재적 의미를 확보하고 있을 때 긍정적으로 내려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위대한 건축가는 선대 건축과 모종의 비평적 관계를 맺고 과거를 현재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며 그 성과를 후대에 영향력으로 전달하는 이일 것이다. 루이스 칸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라는 데는 별 이론이 없을 것이다.

본고는 루이스 칸의 건축이 역사와 관계맺는 방식에 주목하면서 그가 어떻게 모던 건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넓은 지평을 마련했는가에 주목하고자 했다. 그는 역사에 맹종하지도 않고 모던의 신화에 함몰되지 않은 채 독특한 방식으로 역사와 대면했다. 일반 모더니스트와 달리 칸은 건축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일반 원리가 내재해 있다는 상대적으로 낡은(?) 신념을 견지했다. 그것은 질서(Order)와 형태(Form), 디자인(Design)으로 이어지는 독특한 건축 철학으로 체계화되어 피력됐다. 그리고 실제 건축에서 자신의 철학을 구현하고자 했다. 그것은 유형학에 근거한 방식이었고, 보편 언어로서 기하학에 바탕을 둔 구성이었다. 그러한 접근이 보자르적 교육 배경하에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지적했다.

그의 건축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⁵³⁾ 그러나 모던과 전통을 변증법적으로 통합해간 그 만의 독창적인 유형학이

51. 모더니스트 거장들이 실제로 있어서 역사, 전통과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음이 밝혀졌고, 그들이 건축 바깥 즉 기계 등에서 유형을 구했음도 지적되었다.

52. 해체주의 건축가로 알려졌있는 클 힌켈블라우의 볼프프릭스는 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위해서 건축, 역사, 건축주, 비용에 대한 생각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이는 건축을 부정하는 것이다.

53. 그의 건축 철학은 신조의 피력이 지 궁극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의 플라토닉한 철학은 이른바 로고스 중심주의로 볼 수 있겠는데, 최근의 해체론 등에 의해 심하게 비판받고 있다.

칸과 18년간 일을 같이한 커먼던트는 칸의 사상과 실제 건축과의 괴리를 지적하면서, 칸을 시인으로 규정하고 그의 철학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A. Komendant, [18 Years with Architects], N.J., Alory, 1975, PP. 161-190

현대 건축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음도 부인하지 못한다. 칸의 건축은 과거의 방법을 답습하는 것도 아니고 현대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며 문화로서 건축의 존재와 가치를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심지어 칸은 그의 기하학을 통하여 모던 건축에서 방기되었던 초월적인 차원을 다시 되살리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³⁵). 이 점에서 칸은 서구 건축의 전통에서 최후의 인문주의자라고 불리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루이스 칸 건축의 유형학적 성격을 탐구하면서 얻게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그의 건축 사상은 구체적인 物과 형태에 선행하는 추상적 원리 내지 원형의 존재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유형학적 역사 이해와 건축관에 일치한다.

2) 그의 유형학적 사고는 그의 교육적 배경에서 연유하나 모던 건축과의 만남을 통해 변증적으로 현재적 적용가능성을 획득했다.

3) 그의 Form이 원초적 유형 내지 원형(archetype)으로서 유형의 개념과 유사하다면, 그의 기하학은 질서를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Form을 담는(혹은 드러내는) 이상적 형태이자 내적 구조로서 유형의 성격을 띤다.

4) 그의 원초적 기하학과 그 조합은 건축의 발생기로서 작용하고 있으며, Form과 디자인(Design)을 매개하면서 디자인의 원점이 되고 있다.

5) 그의 기하학적 구성은 아카데미의 요소주의적 사고와 상통하고 있으나, 기계적이거나 임의적인 구성이 아니라 의미심장한 전체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6) 유형으로서 기하학은 축조와 빛을 통해 실

로 통합되어 공간적 정체성과 비범한 질적 차원을 부여받게 된다. 그 구성은 대개 중심성과 중첩성으로 특징지워진다.

참고문헌

1. Vincent Scully, 「Louis Kahn」, N.Y. George Braziller, 1962
2. K. Frampton, "Louis Kahn and the French Connection" in [Oppositions] N.22, Cambridge, The MIT Press, 1980,
3. Patricia Cummings Loud, [The Art Museums of Louis Kahn], 1989,
4. A. Tyng, [Beginngs: Louis Kahn's Philosophy of Architecture], N.Y., John Willey and Sons, 1984, (서유석 역, 태림문화사),
5. A. Colquhoun, [Essays in Architectural Criticism], Cambridge, The MIT Press, 1981
6. [Louis Kahn, A+U special], Tokyo, A+U Pub.co.1983
7. A. Latour, [Louis I. Kahn: Wrightings, Lectures, Interviews], N.Y. Rizzoli, 1991
8. K. Frampton, [Modern Architecture, Critical History], London, Thames and Hudson, 1980(1992), 244-245
9. J. Lobell, [Between Silence and Light], Boston, Shambhala pub., 1979
10. C. Norberg-Schulz, [Architecture: Meaning and Place], N.Y., Rizzoli, 1986
11. R. S. Wurman, ed., [What will be has always been: The Words of Louis I. Kahn], N.Y. Rizzoli, 1986,
12. H. Klotz, [The History of Post Modern Architecture], Cambridge, The MIT Press, 1988(1984),

35.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칸은 현대 세속화 사회, 기술 사회,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의 페르다임에 매달린 순진하고 시대착오적인 건축가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그의 명성과 별개였던 성공적이지 못한 재정, 대 고객관계, 비극적인 최후를 참조할 때 수긍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의 명성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계자를 지니고 있지 못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천으로서 그의 실제 건축이 도달한 성과는 이런 견해에 무조건 찬성하기 어렵게 한다

13. J. Guadet, [Elements of Architecture], H.H.Bentley, trns., 1933, Unpublished,
14. S. Vallari, [J.N.L. Durand, Art and Science of Architecture], N.Y., Rizzoli, 1990
15. A. Komendant, [18 Years with Architects], N.J.,Alory, 1975
16. D.B. Brownlee & D.G. De Long., [Louis I,Kahn, In the Real of Architecture], N.Y. Rizzoli, 1991
16. Ur Buttike, [Louis I. Kahn, Light and Space] Boston, 1993.

On Typological Aspects in Architectural Thought and Practice of Louis Kahn

Khang, Hyuk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e, Kyungshung University)

ABSTRACT

Louis Kahn has overcome the limits of Functionalist Architecture and reconnect the classical tradition to Modern Architecture. With a point of view that his special approach to historical precedents enabled him to contribute broaden the horizon of Modern Architecture,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and analyse Kahn's typological thoughts and practice in Architecture.

In many ways his a priori and metaphysical thoughts on Architecture proved to be very similar to typology of 18th Century Neo-Classicism.

And the geometry of Kahn's Architecture play a important role with respects to his typology.

As a form-generator and 'parti' his geometry and its composition play a intermediate role to connect Form and Design and to realize the concrete structure.

Therefore, the concept of his Form could be called an archetype and geometry be a kind of type in his architecture